



고신 신학의 정체성과 과제

허 순 길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봉사신학)

I. 고신 신학의 출발

“고신신학”이란 한국장로교회사의 맥속에서 고려신학교와 고신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학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는 한때 나타났다가는 사라진 해방신학과 같은 어떤 진보적, 혁신적 신학과는 범주를 달리하고 있다. 이 신학은 장로교회 정통신학의 맥을 이으면서 신학과 생활면에서 몰락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를 바르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후 초기 10년동안 한국 장로교계에는 신학과 생활의 영역에 크게 세 흐름이 있었다. 첫째는, 장로교 정통신학의 터 위에서, 일제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켜온 신실한 그리스도 제자들이 있었다. 해방후 이 종들은 일제시 공적으로 배교하고 변절한 한국교회지도자들에게 공적으로 회개할 것을 주장하고, 신학의 재건과 교회의 정화, 개혁을 부르짖었다. 둘째는, 장로교 정통신학노선을 벗어나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신앙생활에서 이교에 대한 양보와 수용적 자세를 위한 무리들이다. 이들은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변절을 하여, 교회교권을 차지했었다. 해방후 이 무리들은 공적인 회개를 거절하고, 교회의 신학적 정치적 현실이 그대로 지속되기를 원했었다. 셋째는, 중도의 입장을

취한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신학적인 면에서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변절자들과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관용과 수용의 태도를 취하였었다. 이 둘째와 셋째 집단에 속한 자들은 때를 따라 서로 협상과 양보를 하면서 개혁을 부르짖는 자들의 세력을 억제하고 무너뜨리는데 합세를 했다. 신학과 교회의 개혁을 호소한 그리스도인 종들은 언제나 이들의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1951년 개혁을 호소한 종들은 이 두 집단의 합세에 의해서 총회 밖으로 축출당하였다. 이 축출당한 종들이 오늘의 고신측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개혁론자들을 축출한 이 두 집단의 밀월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2년 후인 1953년 분열되어 양분되고 말았다. 양분된 이들이 당시 소위 장신(長神)과 한신(韓神) 두 집단의 교회를 형성했었다. 결과 1950년대 한국 장로교계는 삼분구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개혁과 재건을 부르짖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1946년 9월 20일 미 한국 교회의 신학의 재건, 회개와 정화,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 고려신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개혁론자들의 힘은 경남노회에 결집되었었다. 경남노회가 1951년 총회에서 축출당하자, 고려신학교는 계속 이 노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 신학의 재정립과 교회재건 봉사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 해방후 10년 동안의 혼란한 교회 기류속에서 고려신학교는 개혁주의 참된 교회 건설을 위해 봉사를 하면서 정체성(identity)이 뚜렷한 고신신학을 주조해 가게 되었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II. 고신 신학의 형성

고신 신학은 정통적인 장로교 신학의 맥과 틀속에서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형성되어 갔었다. 그 신학의 형성을 다음 몇가지로 요약해 본다.

1.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신학의 전통계승

먼저 고신신학은 평양의 “장로회신학교”가 파수하고 가르쳐온 장로교

정통신학의 맥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로회신학교는 일찍부터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쳤으며 “성경만을 강조된 교과서”로 삼았었다. 이는 주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중심의 사상을 배격하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한국장로교계 안에는 1920년대 후반부터 이 신학교의 신학노선과 다른 신학이 침투해 들어 왔었다. 캐나다 연합교회 소속 선교사 서고도(W. Scott)를 필두로, 채필근, 송창근, 김재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찍부터 정통신학이 자리잡은 한국장로교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10여년간 펼 수 없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때가 온 것이다. 정통신학의 간성인 “장로회신학교”가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1938년 이후 문을 닫게 되었다. 이 때 이들은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평양(채필근)과 서울(김재준)에 신학교를 각각 세워 자유주의 세력의 터를 다지게 되었다(1940).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무오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이교와 타협을 하게 되어 있다. 이들은 “장로회신학교”가 문을 닫은 정통신학 부재의 공간 속에서 신사참배를 하면서 이질적인 신학으로 해방이 되기까지 5년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일제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 투옥되어 5년 이상 고생하다 1945년 해방이 되어 출옥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국 장로교회가 이들의 신학과 교권의 지배아래 있음을 보게 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성인 김재준의 “조선신학교”가 1946년 6월에 모인 남부총회에서 재빨리 남부총회 직영신학교로 인정을 받았다. 해방이 되어도 사탄은 이들을 강하게 붙들고 한국교회의 개혁과 재건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종들은 한국교회의 참된 개혁과 재건은 지난날 “장로회신학교”가 가르치던 그 정통신학으로 전도자들을 교육하여 한국 교회에 파송하는데 있는 것으로 믿고 고려신학교를 설립하여 1946년 9월 20일 문을 열게 되었다.

설립자들은 장로교 정통신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에 합당한 교수들을 모시기 원했다. 하나님은 책임자인 신학자 박운선 목사를 먼저 보내어 주셨다. 그는 “장로회신학교” 출신(1934)으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두번 가서 연구를 한적이 있었다. 1년 후에는(1947, 10) 지난날 장로회신학교에서 교수로 봉사했던 보수신학자 박형룡 박사도 모시게 되었다. 이는 고려신학교가 처음부터 지향한 장로교 보수신학의 진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고려신학교는 출발부터 장로교 보수신학 전통의 계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2. 신학과 신앙, 생활의 조화 강조

고신신학은 신학과 신앙, 생활의 조화를 강조했다. 신앙이 없는 신학은 사변에 지나지 않고, 생활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정통 신학의 터 위에 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순수한 신앙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스런 생활을 해 왔었다. 박해가 왔을 때에 이들의 신학과 신앙의 실상이 순교적 생활로 승화되어 나타났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을 받은 자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교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는 생활의 양태를 보였었다. 일제의 신사참배 압력을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은 쉽게 양보하고 변절하게 된 것이다.

해방이 되자 이 현상은 여전히 그대로 드러났었다. 일제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주의 제자들은 한국교회의 재건을 위해서는 회개와 정화, 개혁이 앞서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신도(神道)를 수용하고 일본 신 앞에 참배한 자들은 이를 거절했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무오(無誤)를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런 생활 태도가 당연시 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무오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심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회개와 정화, 개혁과 재건의 부르짖음에 소극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 사람들 가운데는 신학적으로 정통을 표방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들이 소위 중도 보수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실상 신학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부조화를 드러낸 것이다.

고려신학교는 신학과 신앙과 생활이 상호 유리된 이러한 한국장로교계에 이 삼요소가 조화되는 교회생활의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정통신학을 진심으로 받아, 생활에 구현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마음과 생활이 수반하는 산신학(Living Theology)을 이룬 것이다. 초기 고려신학교는 정통신학을 하는 곳만이 아니었고, 뜨거운 영적 정열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서 교회건설에 봉사에는 나아가는 전도자를 주형하는 신령한 용광로와도 같았다.

3. 참교회 건설에 봉사하는 신학

고려신학은 참교회(A true Church) 건설 봉사에 초점을 맞추었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성경은 이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다(고전 12:27).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개혁주의 교회는 일찍부터 참교회의 표지(標識)가 세가지 있음을 고백해 왔다(Belgic Confession Art. 29) 이는 순수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성실히 거행하며, 말씀을 따라 권징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다.

고려신학교 설립자들(주남선, 한상동 목사)은 일찍부터 선명한 개혁주의 교회관을 가졌었다.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개인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참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변절한 교회에 나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참교회를 건설하도록 촉구했었다.

해방이 된 후에도 같은 열정으로 배교자들의 공적인 회개와 권징을 주장하며 참교회 건설에 봉사했다. 고려신학교는 이 참교회 건설의 봉사를 위해 설립되어진 것이었다.

4. 기존 보수신학 이상의 칼빈주의 신학.

고려신학교는 한국 보수신학의 맥을 이으면서 참된 칼빈주의 신학을 받

아들였다. 이는 특별히 고려신학교 설립시부터 봉사한 박윤선 목사를 통해서였다. 그는 당시 젊은 학자로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 가장 넓고 깊은 개혁주의 신학을 한 탁월한 신학자였다. 종래의 장로회신학은 정통신학을 가르쳤지만은, 그 신학은 실상 근본주의(根本主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형편에 있었다. 근본주의 신학은 주로 성경의 무오성,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개인의 신앙등을 강조하였었다. 박윤선 목사는 “장로교신학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칼빈주의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고 성경신학이라는 말도 들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신학은 실상 정통을 파수하고 가르친 것 뿐이었고,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을 갖지 못했었다.

박윤선 목사는 일찌기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두번 유학함으로(1934-'36, 1938-'39). 칼빈주의 신학의 심오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었다. 그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칼빈주의 신학자 메이첸(G. J. Machen)에게서 신약학을, 반틸(C. Van Til)에게서 변증학을 연구했었다. 칼빈주의 신학의 감미를 맛본 그는 칼빈주의 3대 신학자중 두 분인 카이퍼(A. Kuyper)와 바빙크(H. Bavinck)가 화란인임으로 이들의 저서를 읽지 않는한 그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화란어를 자습하여 정복하고 1953년에는 화란에 유학까지 했었다. 결과 그는 이 두 신학자 뿐 아니라 당시 뛰어난 칼빈주의 신학자 스킬더(K. Schilder)와 그레이다너스(S. Greijdanus)같은 신학자들의 저서도 읽어 칼빈주의 신학의 묘미를 즐기고 포착했다. 그는 1940년대, 50년대에 화란어로 된 칼빈주의 저서를 읽고 소개한 한국의 유일한 신학자였다.

결과적으로 박윤선 목사는 구라파의 전통적인 칼빈주의 신학과 신대륙 미국에서 조형된 칼빈주의 신학 양자를 접하고 소화하였었다. 당시 고려신학교는 이러한 그의 신학을 접하고 교육을 받게된 특권을 누렸었다.

그의 신학의 특징은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신념이 언제나 강하게 나타났는데 있었다. 그는 성경의 내용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했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는

반털이 말한대로 언제나 초자연주의이다. 또한 그는 어떤 인간의 주관적인 사색이나, 신비적 체험을 크게 경계했다. 그는 강의시간마다 타율주의(他律主義), 계시의존 사색을 수 없이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신학입장과 교육은 교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해방후 약 10년 동안 한국기독교계에는 여러 주관주의적 신비주의 운동과 은사운동이 일어나 교계에 큰 혼란을 일으켰었다. 예를 들면 박태선의 전도관운동, 나운몽의 신비주의 운동을 들 수 있다. 당시 많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이에 동조했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고려신학교와 이 신학교의 신학적 영향아래 있던 고려파 교회들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더욱, 박윤선 목사는 지난날 근본주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장로회 신학이 너무 제한된 분야에만 집중하고 일반은총 방면에 등한했던 사실을 발견하고, 칼빈주의란 그 보다 넓고 원시적(遠視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노력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와 문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1952년에 칼빈주의 세계관, 신자와 문화 등 일련의 주제를 다루기도 했다. 오늘의 고신대학교의 효시라고 보는 칼빈학원의 설립도(1955) 그의 이런 개혁주의 문화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칼빈학원은 개혁주의 일반 대학을 목표로하고 설립되었었다.

결과적으로 박윤선 교장은 종전의 보수주의 신학보다 진전된 칼빈주의 신학으로 고신신학을 정립하고 이끌어 갔다. 사실 그는 당시 주경학, 성경신학, 변증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칼빈주의 특성을 드러내며 강의한 때 때문에 고려신학교의 신학은 박윤선의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다.

5. 박윤선 이후의 신학

고려신학은 주남선 한상동의 산 보수신앙의 터위에 박윤선 교장의 안목 있는 칼빈주의 신학으로 건조된 것이다. 거의 15년동안 고려신학의 주형에 봉사한 박윤선 교장은 1960년 고려신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고신신학의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가 떠난후

소위 삼박사(고 흥반식, 이근삼, 오병세)가 구미에서 연구하고 돌아와 고려신학의 교좌(敎座)를 주로 이어받아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거의 30년동안 고신신학에 봉사했다. 이 세 분은 박윤선 교장의 제자로서 신학의 기본교육을 그로부터 받았고 신학의 터를 다졌었다. 박윤선 이후 고신의 신학은 실제로 그의 신학의 체계와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고 보게 된다.

Ⅲ. 고신신학의 정체

고신신학의 정체는 이미 언급한 고신신학이 주형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몇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고신신학은 한국 장로교 정통신학의 맥을 이은 것이다.

고려신학교는 지난날 장로회 신학에 지배적이었던 근본주의 신학의 핵심을 그대로 받아 수용하고, 나아가 칼빈주의(개혁주의)신학을 통해 더욱 부요한 신학을 이루었다. 근본주의 신학의 핵심적 원리인, 성경이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칼빈주의의 신학원리를 따라 신학의 원천과 재료, 신앙생활의 절대표준을 성경으로부터만 찾았다.

둘째, 고신신학은 신학·신앙생활의 일치를 강조한 것이다.

정통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은 성경말씀을 교리와 생활의 절대 표준으로 삼으며, 이를 실제 생활에서 구현하게 된다. 고신은 신학과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건설을 위해 힘썼다. 엄격한 신앙생활의 강조가 어떤 때는 외부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셋째, 고신신학은 참교회 건설에 봉사한 것이다.

고려신학교는 처음부터 참교회의 표지를 가진 교회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바르게 성례를 거행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권징을 행하는 것이다. 고신은 죄에 대한 권징을 성실하게

시행함으로 교회가 참교회의 모습을 가진것을 강조하여 왔었다.

넷째, 칼빈주의 신학의 강조이다.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받은 칼빈주의 신학은 구라파(화란)와 미국의 청교도적 칼빈주의 신학의 결합이었다. 이는 특별히 박윤선 교장에 의해 주형된 것이었다. 그는 당시 한국에서 화란어 저서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학자였다. 그는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글에 매우 심취했었다. 모든 사상 체계의 원천을 성경에서만 발견하려고 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에 큰 감명을 받고,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이런 태도로 신학 교육에 임했다. 그는 주관적 사색을 경계하고 멀리했다. 이는 그의 설교시에서도 밝히 드러났었다. 이것이 고신신학의 정체었다고 할 수 있다.

IV. 고신신학 정체성의 위기

고려신학교가 설립된지 10년이 되는 무렵 고신신학은 그 정체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50년은 고려신학교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요, 이 학교를 중심하고 전개해 온 교회개혁운동 1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이 해 4월에 모인 총노회는 9월 20일에 총회를 개편하기로 결의하고, 총회직전에 10주년 기념부흥회를 개최했다. 신학교는 송도에 새교사를 신축하여 1956년 3월에 이전했다. 밖으로 볼때 교회가 체제정비를 하게 되고, 신학교가 안정을 얻어 도약의 계기를 맞은 듯 했다.

그러나 이 때부터 교회지도자들이 당면한 교회의 문제들을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난날과 같은 예민한 영적 감각과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현상을 드러내었다. 이로서 고신신학은 차츰 정체성을 잃게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고신, 혹은 고신신학이 당면한 위기들을 몇가지 들어본다.

1. 개혁주의 생활원리를 떠난 예배당 쟁탈전

고신 초기 생활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하나님의 영광”

(Soli Deo Gloria)이란 생활의 표이아래 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특별히 한상동 목사가 총회측으로부터 예배당 양도 요구를 받았을 때에, 바로 내어주고 나온데서 대표적으로 드러났다. 신자들이 예배당을 확보하기 위해 분열되어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마산 문창교회 경우는 달랐다. 예배당 확보를 위해 계소하여 법적투쟁을 여러해 계속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박윤선 교장은 1950년 개혁운동 10년을 맞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법정투쟁은 교회의 미래의 전진에 방해가 된다고 하고, 신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쟁탈전으로부터 물러서자고 호소했다. 한상동 목사를 위시한 지도자들이 이 주장에 원리적인 동감을 하면서도, 행동으로 그에게 동정해 주지 않았다. 결과 그는 1957년 2월 교장직을 사면하고 떠났다가 그해 9월에 학교 이사들의 정신적인 동의를 얻고 복귀하였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문제에 대해 변한 것은 없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의 부조화를 노출한 첫번째의 경우였다. 신학교 신앙과 생활의 교회를 중요하게 어려운 고신신학의 첫 위기를 맞은 것이다.

2. 신중성을 잃은 합동

1960년 12월 고신교회는 당시 장신총회의 분열로 생긴 승동측과 전격적인 합동을 하였다. 고신측 경남노회는 10년전에 이들에게 불법축출을 당하여 다른 교회조직을 만들었다. 그런데 축출한 이들과의 합동은 신중을 기해야 했다. 그런데 고신지도자들은 신중성이 결여된 전격적인 합동을 함으로 고신신학 정체 상실의 위기를 몰고 왔었다. 고신 지도자들이 합동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동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장로교에 보수측을 돕는다는 데 있었다. 1959년 가을 장신계 총회가 승동측과 연동측으로 분열되었다. 당시 승동측은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대내 대외적으로 보수계라고 표방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이들의 정신적 지주인 박형룡 박사의 소위 3천만환사건 때문에 분열은 상당히 정치적

인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이들이 용변적으로 한국교계에 표방할 수 있는 길은 보수신학이 뚜렷한 고신파와의 합동이었다. 그래서 고신계 지도자들에게 합동을 호소해 왔었다. 합동함으로 자신들을 도우고 한국 장로교 보수진영의 힘을 절친하자는 것이었다. 이 때 고신 지도자들을 단번에 합동하기로 뜻을 모았었다. 합동은 총회에서 공적으로 논의된지 2개월 반 후에 성사되었다.

이 합동은 순수한 신앙의 동기에서 만이 추진 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고신계 지도자들은 지난날의 교회중심 생활의 진지한 태도와 겸손을 잃었었다. 이 전격적인 합동은 지난날의 고려신학교와 고려파 교회의 개혁의 역사를 만들어 고신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무도 소홀히 했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둘째, 당시 고려신학교가 맞은 최대 위기를 극복을 합동에서 찾은 것이었다. 고신 이사회는 1960년 9월 주일성수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박윤선 교장을 해임하고, 그의 교수하는 일을 정지시켰다. 박윤선 교장은 지난 15년간 고려신학교의 신학을 정립한 학자였을 뿐이나라. 신학교육을 주도해 왔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9월에 고려신학교를 떠나 버린 것이다. 당시 그가 없는 고려신학교의 존재란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사회(교계지도자들)는 승동측과의 합동해서 이 난국의 해결의 길을 모색하려 한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인내로 위기를 대처하는 신앙의 약화였다 할 수 있다.

3.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생활의 약화

고려파 교회의 고려신학교는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생활을 강조해 왔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하게 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차츰 교회의 금지인 생활에서 이것이 외면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학교와 교회는 큰 홍역을 치루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변질은 합동과 환원후에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 중 몇가지 예를 들어 본다.

1967년에 대학인가를 목적으로 “학교 법인 고려학원” 인가를 받게 되었

다. 당시 송상석 이사장의 협조가 소극적으로 학교 당국은 “가이사회”를 조직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받게 되었다. 인가가 난후 이 사실이 이사장에게 알려져 그와 학교사이에 일력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는 3년동안 이란 장기간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송상석 목사는 1967년 “가이사회” 조직사건을 “사조이사단”이라 이름짓고 규탄했었다. 그런데 1972년에는 송상석 이사장 자신이, 총회가 선임한 이사회를 부정하고, 소위 법적 이사장직 확보를 위해 “이사회록”을 조작하고 사문서 위조를 했었다. 이 일로 인하여 신학교가 흥역을 치르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는 목사면직을 당하기까지 했으나, 이 때문에 교회일부가 분열해 나가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일은 1960년에도 있었다. 고려학원 법인 이사회와 고려신학대학 당국은 고려신학대학을 일반기독교대학으로 만들고자 그 교명을 고치기 위해 1966년 총회에 제의했다. 그러나 총회는 절대다수로 이를 부결시켰었다. 그전대 1980년 돌연히 교명이 고신대학으로 변경되고, 신학대학이 일반 대학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허락이 난 것이다. 이는 이사회의 결정이나 총회의 재론없이 특정인의 단독 결정으로 되어진 일이었다.

위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충실해야 봉사하는 생활의 변질을 의미한 것이었다.

4. 교회중심 생활을 외면한 지도자들의 임의적 처사

개혁주의세계는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중심의 생활을 한다. 고려파 교회는 일찍부터 “교회중심”의 생활을 강조해왔다. 이 생활은 교회 회중 가운데 성령이 내주해 계심을 믿고, 주의 뜻을 살피는 과정에서 회중의 뜻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곧 직분자들의 독단적 처사나 교권적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고려파 교회는 교회중심을 강조하면서 교회중심의 생활을 하는데 차츰 약점을 보여왔다.

교회는 처음부터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신임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따금 이런 신임을 차츰 당연하게 여기고 임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일들을 처리해감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특별히 교회의 뜻을 거의 무시한 합동의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그후에 계속 나타나게 되었다. 1962년 10월의 고신 복교, 1967년의 “사조 이사단” 사건을 위시한 위에 이미 언급한 여러 사건들에게 나타났었다. 이 사건들은 다 고신교회사의 부끄러움이다. 고려파 역사에는 몇번이나 특정 지도자들이 “일은 먼저 수습은 뒤에”라는 비교회적인, 비공동체적인 생활의 선례를 남기었다. 지도자의 임의적, 독단적 처사의 수용을 교회에 강요하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어떤 면으로 개혁주의 교회가 가장 경계하는 교권이 크게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로써 고신과교회는 개혁주의 생활에 변화와 변색을 가져 왔다. 이로써 고신은 고신신학 정체상실의 위기를 당면하게 된 것이다.

V. 고신신학의 과제

지난 고신 50년 역사에서 고신신학은 어떤 면에서 한걸음 전진했으나, 다른면에서 두걸음 후퇴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1952년 총노회로 출발할 당시 300여교회였던 고신교세가 약 반세기를 지난 지금 1,300여교회로 늘어났고, 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등을 갖게 되어 외형적으로 한걸음 전진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개혁해가는 교회로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진보다 후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고신교회는 그 정체성을 차츰 상실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신교회는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로서 내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 오지 못했다. 여기서 고신신학의 당면한 과제를 찾게 된다.

1. 개혁주의 신학의 탁월성을 드러내어야만 한다.

박윤선 목사는 고려신학교에 칼빈주의 신학을 심었다. 그가 구라파의 미주의 신학과 생활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어느 신학

자도 할 수 없었던 양 신학의 주류의 깊이를 포착했었다. 그는 한국에 있어서 첫번째의 참된 칼빈주의 신학자였다.

고려신학교는 그가 떠난 후 36년동안 그의 신학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개혁주의 신학의 심체에 파고들어가 그 심오성과 그 탁월성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더 연구하여 빛내지도 못했다. 이것은 그동안 봉사해온 교수들에게 책임이 있으나, 교수들에게 시간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한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 앞으로 고신은 한국에서 명실공히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간성이 되어 개혁주의 신학의 탁월성을 드러낼 책임이 있다.

2. 개혁주의 신앙의 생활화를 이룩해야만 한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a Deo Gloria),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등의 개혁주의의 모토가 구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신앙이 생활화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서 고려파는 처음부터 신앙의 생활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곧 말씀대로 살자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교회생활에서 강력한 권징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신앙의 생활화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십계명의 첫부분 뿐 아니라, 둘째 부분의 계명도 꼭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의 영광을 위해 생활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왕이 되시게 해야 한다. 신앙의 생활화가 고신신학의 큰 과제이다.

3. 교회지도자의 임의적인 결단과 전횡이 그쳐야 한다.

고려파교회는 특정인물의 전횡적인 처신으로 여러번 큰 홍역을 겪었다. 지도자는 교회 회중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알고 교회를 향한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회중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하며, 치리회의 뜻과 결정을 중시할 줄 알아야 한다. 교회와 치리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는 교권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교회의 동의를 무시한 교회지도자의 전횡이 사라져야만 한다.

4. 개혁주의 원리를 계속 연구하여 교회생활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혁주의 생활의 원리를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교회생활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까지 개혁주의를 외쳐왔으나 신앙생활에 개혁주의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의 특성이 교회들 속에서 부각되지 못했다. 개혁주의를 부르짖었으나, 매우 가공적인 것이었고,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개혁주의 원리에 대한 깊은 연구없이 실리를 따라 생활을 해 온 적이 너무 많다. 한두가지 예를 들어 본다.

개혁주의 세계는 전통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만이 주와 왕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인간의 교권이 치리를 잡지 못하게 모든 노력을 강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는 교권방지를 위한 제도의 장치에 늘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가 도입해오고 있는 정치체제는 장로교 정치체제보다 감독 정치체제로 기울고 있다.

다음으로 개혁주의 세계는 주께서 주신 영역주권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개혁주의 교회는 기독교 일반 대학이나, 병원들이 교회의 주권 영역에 속해 있는지, 신자들의 문화 활동의 주권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영역주권의 원리에 전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혼돈은 결국 주의 교회건설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 양자에 손해를 가지고 온다.

고신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함으로 참된 교회건설과 참된 하나님을 나라 건설에 이바지 할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최선의 길을 교회앞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00년이상의 교회사의 연륜과 반세기의 자기의 고유한 역사를 가진 고신교회는 이제 개혁주의 고신신학의 정체성을 되찾고, 이를 계발하고 생활에 적용해 가야할 중대한 사명을 지고 있다.